



기연
奇緣 모의고사

· 기연모의고사 제1회 ·

정답 및 해설

1	②	2	②	3	③	4	④	5	②
6	④	7	⑤	8	⑤	9	②	10	

해설

[연계 지문]

[1~4] <연계> 인문·예술01, EBS 수능특강 독서 56쪽, 로티의 자유주의 해석학

1. [출제의도] 글의 전개 방식 파악하기

답 ②

정답 해설

이 글은 기존 인식론의 대표적 관점인 '토대주의'를 소개한 후, 철학자 콰인의 비판적 입장을 제시하고, 이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총체주의'를 설명하며 구체적인 사례(예: 금속 실험, 법 해석 등)를 통해 그 특징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즉, 기존 철학적 관점을 비판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이론을 실제 사례를 들어 구체화한 것이므로 ②가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전통 인식론인 '토대주의'는 서론 일부에서만 소개되며, 핵심은 콰인의 비판과 대안 제시이므로 중심 전개 방식과는 거리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
- ③ 콰인의 철학을 과학 사례를 통해 반박한 것이 아니라 구체화하고 정당화한 것이므로, '반박'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 ④ 언어 이론(의미론적 전체론)과 과학 이론(총체주의)을 비교하긴 하지만, 글의 중심은 총체주의의 철학적 의의와 전개에 있으므로 비교 설명 중심으로 보기 어렵다.
- ⑤ 철학 이론의 계보를 서술하거나 현대적 재해석을 중심으로 서술한 글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2.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추론하기

답 ②

정답 해설

지문에서 토대주의는 모든 참된 지식이 자명하고 독립적으로 검증 가능한 기초 명제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고 하였다. 이때의 기초 명제는 그 자체로 참이 명백하여 다른 명제들의 근거가 되는 토대 역할을 하므로, ②의 "그 자체로 참이 명백하다고 여겨져 다른 명제의 근거가 되는 명제"가 이에 정확히 부합한다.

오답 해설

- ① 다수의 전제와 실험 조건을 포함해 참을 검증하는 방식은 총체주의적 관점에 해당하므로, 토대주의의 기초 명제와는 맞지 않는다.

- ③ 여러 명제 간의 정합성 속에서 의미가 형성된다는 설명은 의미론적 전체론의 핵심 주장에 해당한다.
- ④ 전체 이론의 설명력 속에서 주장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총체주의적 검증 방식이며, 개별 명제를 자명한 기초로 삼는 토대주의와는 다르다.
- ⑤ 철학적 전통에서 반복적으로 수용된 개념이라도, 그것이 자명하고 독립적으로 검증 가능한 명제인지는 별개 문제이므로, 토대주의의 기초 명제 정의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3.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 파악하기

답 ③

정답 해설

지문에서는 ㉠ 의미론적 전체론이 "각 명제는 독립적으로 검토될 수 없고, 오직 다른 명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하여 명제들 사이의 의미적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 총체주의는 "예측은 다양한 전체들의 작용 결과이며, 검증은 개별 명제가 아닌 전체 이론 단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여 과학 이론 검증에 있어 명제들 간의 상호 정당화 과정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두 이론의 차이를 정확히 짚은 ③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은 언어와 의미의 정당화, ㉡은 경험과 이론의 검증을 다루므로, 경험적 검증은 ㉡의 핵심이다. 서술이 서로 뒤바뀌어 있어 적절하지 않다.
- ② ㉠은 명제의 의미가 다른 명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보며, 개별 명제의 진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에 대한 설명이 틀렸다.
- ④ ㉠은 실험 설계와는 무관하며, 언어적 맥락에서의 의미 작용을 중심으로 한다. ㉡은 과학 이론 검증을 다루지만, 중심은 실험 설계가 아니라 이론 전체의 조정 가능성이다.
- ⑤ ㉠과 ㉡ 모두 명제를 독립된 단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은 옳지만, ㉡은 명제 간 논리적 동일성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은 지문에 근거가 없다. 오히려 유기적 조정 가능성을 강조하므로 부적절하다.

4. [출제의도] 글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답 ④

정답 해설

콰인의 총체주의는 예측 실패의 원인을 단일 가설에 귀속시키기보다는, 실험 조건, 장비, 해석 기준, 배경 이론 등 전체 이론 체계 속에서 원인을 분산시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기> 속 생물학자는 예측 실패를 계기로 실험 온도(I), 배지 성분(II), 측정 장비(III), 측정 기준(IV), 기존 이론(V) 등 다양한 요소를 동시적으로 검토하고 원인을 분산시켜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총체주의적 오류 분석 방식에 부합한다. 따라서 ④가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실험 장비만을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온도, 배지, 기준, 이론까지 모두 검토하였으므로, 원인을 장비에만 한정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총체주의는 명제 간 독립성이 아니라 상호 의존성과 체계 속 정당화를 강조하므로, 명제 간 독립성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반대 개념이다.
- ③ 실험 결과를 근거로 가설을 바로 폐기하지 않고, 다양한 조건을 재검토하였으므로 가설 폐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⑤ 중심 이론의 유지 여부보다는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고 있는 점이 핵심이다. 중심 이론의 보완 유무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으므로 이 설명은 부적절하다.

[연관 기출]

[5~9] <기출> 2017학년도.11.수능, 홀수형 16~20번

5.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추론하기

답 ②

정답 해설

2문단에서 콰인은 "가설을 포함한 전체 지식 체계가 경험을 통해 시험된다"고 하였으므로,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할 것이다. 따라서 ②는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가설로부터 도출된 예측을 통해 개별 지식이 누적된다고 보므로,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할 것이고, 콰인은 전체 체계의 변화만 인정하므로 '아니요'라고 답할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③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논리 지식은 경험과 무관한 분석 명제라 보아 '예'라고 답할 것이고, 콰인은 분석 명제의 순환성을 지적하며 이를 부정하므로 '아니요'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④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가설로부터 예측이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보아 '예'라고 답할 것이고, 콰인은 기존 지식과 조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므로 '아니요'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과 과학 지식을 구분하는 반면, 콰인은 중심부와 주변부의 연속성을 주장하므로 둘을 명확히 나누지 않는다. 따라서 ⑤는 적절하지 않다.

6.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 파악하기

답 ④

정답 해설

3문단에서 콰인은 '총각은 총각이다'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라는 명제를 통해 분석 명제 개념이 순환론에 빠진다고 비판하며,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를 구분하는 기존 논리를 부정한다. 따라서 ④는 콰인의 입장에 부합하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포퍼는 예측이 맞을 경우가 아니라 틀리지 않는 한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으므로, 포퍼가 예측의 적중 여부만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분석 명제는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판별되므로, '총각'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은 분석 명제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콰인은 중심부와 주변부 지식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다고 보며, 이 둘을 다른 종류로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⑤ '동어 반복 명제'는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이 경험과 무관하게 참인 명제이다. 대체 후 참/거짓이 바뀐다면 동의적 표현이 아니므로, 동어 반복 명제로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7.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평가하기

답 ⑤

정답 해설

정답 해설: 5문단에서 콰인은 총체주의의 입장에서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측이 거짓으로 드러나더라도 전체 지식(㉔)을 수정함으로써 가설(㉑)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㉑가 거짓이더라도 ㉔를 수정하여 ㉑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⑤는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2문단에서 콰인은 예측(㉑)은 가설(㉑), 전체 지식(㉔), 여러 조건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므로, 예측이 틀렸다고 해도 가설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② 4문단에서 수정은 대체로 주변부에서 이루어지지만, 필요하면 중심부도 수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항상 주변부만 수정한다고 한 ②는 적절하지 않다.
- ③ 2문단에서 예측(㉑)은 가설(㉑), 전체 지식(㉔), 조건들을 합쳐 도출된다고 하였으므로, ㉑와 ㉔로부터 ㉑가 도출된다는 ③은 적절하다.
- ④ 4문단에서 경험과 충돌한 주변부 지식은 전체 지식의 일부이므로, 예측(㉑)이 틀렸다면 그것이 ㉔의 일부인 주변부와 충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④는 적절하다.

8.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비판적 이해하기

답 ⑤

정답 해설

5문단에서 총체주의는 중심부와 주변부의 경계를 명확히 나누지 않지만,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이 존재한다는 비판에는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총체주의가 경계의 불분명함을 강조하면서도 사실상 분석 명제처럼 다루지는 지식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⑤은 적절한 비판이다.

오답 해설

- ① 총체주의는 예측이 틀렸다고 해도 그 원인이 반드시 가설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므로, 이러한 입장은 총체주의의 주장 자체와 부합하며 비판이 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총체주의는 중심부 지식(논리학, 수학 등)도 경험과 완전히 무관하지 않다고 보며, 경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분석 명제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 진술 역시 총체주의와 일치하므로 비판이 되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
- ③ 총체주의는 중심부든 주변부든 상황에 따라 모두 수정 가능하다고 보므로, 수정 대상을 주변부에 한정한다는 비판은 총체주의에 맞지 않으며, 적절하지 않다.
- ④ 중심부 지식의 수정은 전체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지만, 총체주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심부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9.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답 ⑤

정답 해설

② '도달하다'는 '목적한 곳이나 수준에 다다르다'는 뜻이므로, '다다르다'는 의미상 가장 유사하여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잇따르다'는 '사건이나 행동이 잇달아 일어나다'는 뜻이므로 의미가 달라 적절하지 않다.
- ③ '봉착하다'는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에 부딪치다'는 뜻이므로 상황적 의미가 달라 적절하지 않다.
- ④ '회귀하다'는 '한 바퀴 돌아 원래 위치로 돌아오다'는 의미이므로 '도달하다'와 방향성이 달라 적절하지 않다.
- ⑤ '기인하다'는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다'는 뜻이므로 '도달하다'와 의미상 연결되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

기연편람 : 수특 인예(01강), 로티의 자유주의 해석학

주제

로티, 비트겐슈타인, 콰인의 철학과 인식론 비판

지문 정리

로티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과 콰인의 전체론을 바탕으로 현대 인식론의 토대주의를 비판하며, 진리를 유동적인 해석과 합의의 산물로 재정의한다.

소재 및 핵심 정리

소재	핵심 정리
현대 인식론	자율적 주체가 보편적 이성을 통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명제의 논리적 분석을 통해 철학을 수행함. '거울 이론'에 근거해 확고한 표상만을 지식으로 인정함.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	언어의 의미는 고정된 실재가 아니라, 특정 '언어 게임'의 규칙 속에서 정해짐. 과학 개념도 이러한 규칙 합의의 결과로 봄.
콰인의 전체론	명제는 독립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서로 정당화를 요구하는 '그물망' 같은 체계를 이룸. 과학 법칙의 증명은 순환적이며, 이로 인해 절대적인 토대는 존재하지 않음.
로티의 철학	인식론의 토대주의를 비판하고, 진리를 고정된 실체가 아닌 사회적 합의의 산물로 봄. 철학을 '언어 게임'으로 재해석하고, 실용적 설명력과 예측력을 평가 기준으로 삼음.
해석학의 전체론적 성격	해석학은 상호 참조를 통한 순환적 이해를 중시하며, 다양한 담론 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함. 이를 통해 철학의 대화성과 다원성을 강조함.

연계 포인트 정리

소재	연계 방식	출제 포인트
현대 인식론 vs 해석학	개념 대립 구조	인식의 근거(표상 vs 체계 정합성), 진리관의 차이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	언어의 의미 형성 과정	의미 구성의 상대성, 규칙 기반 해석
콰인의 전체론	이론 검증 구조	경험적 반증 불가능성, 전체론의 순환 구조
로티의 철학	자유주의적 해석학의 철학적 의미	진리의 사회적 구성, 철학의 실용성